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스토리 발굴 국제워크숍



“이제 아시아의 신화가 세계를 지배한다”
지난 세계 세계를 지배한 서양의 신화에 반기를 들고 아시아의 이야기를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됐다.

서구 신화 지고 아시아 신화가 세계 지배할 것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사)아시아문화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아시아, 스토리를 말하다' 국제포럼이 10일 서울교육문화관에서 열렸다.

“亞문화 창의성·상상력 새 미래 창조 동력으로”

이병훈 단장 인터뷰



“이번 국제워크숍을 통해, 아시아의 귀중한 스토리 자원들이 새로운 아시아 문화를 창조하는 하나의 훌륭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단장은 “아시아인들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하는 공동체를 추진해 나갈 때, 국가 단위의 경계를 넘어 아시아인 모두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오는 2014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완공을 목표로 하면서 아시아의 스토리, 조형상징·예술, 의례·공연예술, 의식주, 이주·정착 등 5대 영역을 중심으로 개관 전까지 집중적으로 조사 활동과 아카이빙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아시아 스토리 조사사업’은 그중 스토리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각국의 문화와 예술 저변에 깔려 있는 아시아적 가치와 문화적 자원을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또 “아시아 스토리 조사사업은 이미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사전조사를 해 아시아 전역의 스토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는 등 스토리 디렉터리 작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자국의 스토리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각국의 대표적인 스토리들을 추천하고 아시아의 귀중한 스토리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야기는 보편·특수성 모두 내포



◁조현설(서울대 교수) '민담적 복수와 신화적 화해' = 신화든 민담이든 이야기는 지역·민족·국가를 넘어 존재한다.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이야기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역사 태초시대 국가수립 기여



◁홍우원 흥 비(베트남·하노이인문사회과학대 교수) '영남척과-문화적 접근' = 영남척과는 영남 땅의 이상한 사건들을 모으고 수집한 것인데, 이야기의 과정은 신비·기괴·경이한 것을 배척하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

각자 임무에 충실해야 할 교훈



◁김대원 디와사 조시(네팔·시인) '네팔 민담 : 등장인물 성격의 구체적 특징들' = 네팔에는 다른 유형의 이야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간 본성의 구체적인 특성과 연관된 짧은 설화들이 많다.

방치된 亞 서사 유산 일깨워야



◁고은(시인) 기조연설 = 그동안 서구 중심의 문화 행위와 예술적 작품들이 군림함으로써 아시아 각 지역의 그 지역성이라는 다채로운 독창성들이 담긴 서사 표현이 약화되거나 아예 인멸하다시피 하는 현상이 없지 않았다.

몽골 설화 유목문화 풍부하게 담겨



◁신연진(동림 몽골·몽골국립대학교 교수) '몽골 설화의 분류' = 몽골의 설화는 ▲동물이야기 ▲마법이야기 ▲영웅이야기 ▲속담·속어 이야기 등으로 구분된다.

스토리텔링은 가족·문화 소속감 줘



◁로즈마리 소마이어(싱가포르·시인) '아시아의 신화와 민담-싱가포르 한 스토리텔러의 관점' =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우리의 유산과 타인의 유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족·문화·공간에 대한 소속감을 제공한다.

인간 본성 연관 해학·풍자 설화 많아



◁왕주 토씨(태국·마하사라캄대학교 교수) '태국의 문학전통과 두꺼비왕 프야 칸카악 이야기' = 두꺼비왕 프야 칸카악은 수 세기 동안 이산(태국의 북동지방) 주민들의 삶의 일부였다.

Wedding, guest room, Shangmujiu Grand Hotel, Art Hall, Grand Opening Ceremony. Includes details about buffet, entertainment, and contact information.

Canon Store Kwangju Branch OPEN. Special offer on Canon EOS 500D and IXUS cameras with lenses. Includes a list of products and prices.